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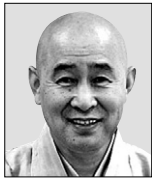
지구총공생회에 1천만원 기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8월 30일 지구총공생회 사무국에서 제17회 만해대상 상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구총공생회에 기부했다.



군종교구 호국연무사 법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9월 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TV에 토지 기증
하동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은 8월 28일 영상포교발전을 위해 세종시 소재 토지 약 500평을 불교TV에 조건없이 기증했다.



평화메시지 전달
前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여여선원 선원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8월 25일 반 사무총장 생가에서 '세계를 평화롭게'라고 쓴 휘호를 전달했다.



경북 문화재위원 위촉
동국대 불교미술학부 교수 청원 스님은 8월 23일 경북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25회 백고좌대설법회
대구 범어사 주지 실상 스님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25회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한국종교연합 제68차 평화포럼



한국종교연합(공동대표 무원)은 8월 27일 오후 2시 삼광사에서 '종교와 음식문화'를 주제로 제68차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박남수 천도교 교령, 공동대표 겸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KCRP 전 대표회장 백도웅 목사, 전주고 글라넷 선교수도회 원장 주낙길 수사, 원불교 평양교구장 김대선 교무,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고문 정영문 목사, 공동대표 김길철 천도교 부산시교구장,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만순 삼광사 약선사찰요리 연구원장은 발표에서 "불교음식문화는 불살생의 생명존중사상과 탐욕의 절제를 통한 정신이 음식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이 시대의 대안음식"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중단 內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

1주년 맞은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이웃종교보다 늦게 출범한 만큼 열심히 현장을 뛰었습니다.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8월 27일로 꼭 1주년을 맞은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위원장 종호 스님은 1년간의 소회를 이 같이 밝히며 마무리를 풀었다. 부끄럽다는 말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창립만으로도 노동운동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했던 불교계에 큰 이슈가 됐다.

실제 노동위원회는 1년 간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학습지 노동자 등 전국 노동현장을 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위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의 아픈 상처를 불교적으로 보듬기 위한 작업들도 이뤄졌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및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정도 로 호응이 좋았다. 올해 초 개원한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은 상처받은 노

1년간 현장 다니며 분투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
중단 노동환경 바뀌어야
현장 활동가 부족 아쉬움

동자와 가족들의 고민을 듣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격주 이어진 동사섭 법회도 노동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매개체가 됐다.

하지만 노동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이는 스님도 아는 문제였다. 현재 불교 철학과 사상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중단과 불교계 안에서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논의된 바 없다. 실제 불

교계 사찰,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 4대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인 등 열악한 조건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조계종 노동위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교계 노동인식은 미약합니다. 특히 중단이나 사찰 등 불교계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은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단의 안정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현장으로 달려갈 활동가 스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식있는 젊은 스님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학생들 위한 도서관 기금으로 써달라”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5000만원 동국대에 기부

일운 스님은 8월 28일 오전 11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찾아 5000만원을 전달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기금에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과 정창근 경영부총장, 중앙도서관장 계환 스님, 이창학 대외협력실장, 박세훈 학술정보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일운 스님은 “동국대는 불교계가 세운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며 “학생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운 스님은 1969년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출가했으며 1991년부터 울진 불영사 주지로 부임해 조계종 중앙총회의원과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부회장, 울진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일봉선원 법해 스님 주지 진산식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8월 27일 일봉선원 대법당에서 신임주지 법해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일봉선원은 종단 창종주인 일봉 서경보 스님이 1987년에 창건한 사찰로 이번에 새롭게 복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지공 스님,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위원 원각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 지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종단화합과 평화사상 발현을 위해 일봉선원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봉종자님의 역사이며 종단의 상징인 일봉선원의 범등을 밝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위원 원각 스님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고은 시인, 수원에서 문학 3기 활동

안성시대 30년 <만인보> 등 130여편 저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온 고은 시인(사진·전 본지 고문)이 수원의 고은문학관으로 거처를 옮겨 3기 문학인생을 펼친다. 수원시는 8월 29일 고은 시인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으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고은 시인을 모셔오기 위해 생태박물관

용도로 매입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65㎡ 규모의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고은문학관으로 건립해 인문학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고은 시인은 그동안 안성에서 30여년간 거주해왔다. 일명 안성시대로 대표작인 <만인보>를 비롯해 본지 창간

연재소설 <수미산> 등 130여편의 저술을 펴냈다.

고은 시인은 “안성에서 살며 저술한 것들이 서울 시대의 것들을 능가한다. 이제 수원 시대의 문학활동이 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 시인은 향후 <채녀>, <운명> 등과 함께 <수원시편>을 집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점자불경 공부... “종교 갈등 해소 글 쓸터”

<불교문예> 가을호 당선 시각장애인 조재훈 씨

“모기보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사상이죠. 그런 면에 불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점자책으로 <부처님의 생애> <법화경> 등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불교문예> 가을호에 동화 ‘웃샘’으로 당선된 조재훈 씨(72)는 시각장

어인이다. 고회를 넘긴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점자책으로 글을 읽고 시각장애인용 특수 컴퓨터로 글을 쓰는 성실한 작가다. ‘웃샘’은 아토피를 앓는 도시 아이가 시골 할머니댁에 머물며 웃샘물로 병을 이겨낸다는 이야기다. “지난 3월 불교문학창작교육원에서 불교적 글쓰기 공부 했어요. 수업전 기도를 읽는 것이 무척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등

단까지 하게 되니 무척이나 기쁩니다.”

그는 2005년 <모기보시>라는 사찰 배경의 동화로 책을 낸 바 있을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다. 글을 쓰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결심을 하며 글쓰기에 매진하게 되었다. 조 씨는 “앞으로 종교간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제1회 원주 전통관화 공모전

원주 고관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제1회 원주 전통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의 미와 정서를 주제로 한 전통관화와 창작관화, 생활관화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받는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참가비도 무료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재청장상(상금 일백만원)과 원주시장

상(상금 오십만원), 고관화박물관장 상(상금 이십만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작품들은 원주 고관화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한 달간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관화박물관 홈페이지(www.goapnhwa.or.kr)와 전화(033-761-78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현진 기자

참회의 눈물로

승단의 생명은 청정과 화합에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참회의 눈물을 보여야 합니까

씻을 수 없는 속 보이고 냄새나는 추한 짓들에 숨 막히고 숨 쉴 수 없는 중단 현실 눈뜨고는 말 할 수 없는 절망의 한숨 소리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 입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던 말입니까

인연법과 인과를 믿고 봉사하여야 할 출가 수행자들이여 정직 겸손 정의로워야 할 수행자들이여 자기 자신을 속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일까요

눈 감아 주고 침묵을 하는 것입니까 내 몸의 썩은 부위도 아픔의 고통이 있어도 수술하여야 합니다. 치료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똥은 비단으로 싸도 그 냄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타버린 씨앗을 심어서는 싹이나 열매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위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거울이 되고 역사의 등불이 되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역사 사회 속에 신뢰와 사랑받는 불교 본연의 승단을

만들어야 할 출가 수행자들이여 보고도 눈감아 주고 침묵하시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참회의 눈물로 발원 드립니다.

대우 합장 02)3210-0108, 010-2625-3307